

# “ 가난에 희망 심는 ‘올빼미’ 선생님 ”



중부청소년학교 야학교사

## 김진식



배움이란 물을 거슬러 배를 가게하는 것과 같다(學問如逆水行舟)고 했다가, 21년동안 야학의 만학도들과 함께 배움의 노를 저어온 김진식씨의 강의 모습.

성철 스님에게 어느 기자가 “다시 태어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라고 물었다.

스님은 주저없이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주경야독(晝耕夜讀)과 형설지공(螢雪之功)의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형설지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보금자리 ‘야학’. 야학에는 배움에 목마른 학생과 그들의 빛이 되는 교사가 있다. 정년퇴임을 2년 앞둔 군무원 김진식 씨(58). 그는 21년 동안 경기도 일대의 야학교에서 국어·한문·역사를 가르치다 현재 총무로 있는 중부청소년학교에서 하루 4시간씩 역사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야학교사의 ‘대명사’다.

한 직장에서 20년 동안 몸담고 있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김씨가 군무원이란 직업을 결심하며 야학교 편을 21년 동안 잡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더군다나 강의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매달 20여만원씩 씹짓돈을 써 가면서까지 말이다.

“배고픈 설움 못지않게 못 배운 설움도 컸습니다. 열아홉 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절에서 공부하며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와 군무원시험에 합격했지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지금까지 김씨가 담당했던 야학만도 성남 제일실업학교, 서울 암사동 유심청소년학교를 비롯해 5곳. 학생 수로 따지면 2천여명이 훌쩍 넘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1991년 성남 제일실업학교. 당시 김씨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성남시 은행2동 공터에 비닐하우스로 야학교를 세우고 5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집 없는 학생들을 위해 비닐하우스 야학교 옆에 벽돌과 슬레이트를 이용해 임시 처소도 만들었다. 검정고시 시험 한 달 전

에는 학생들과 함께 합숙을 해 가며 모든 열정을 다 바쳤다.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하루 3시간 씩 자며 원고를 정리해 500페이지 분량의 ‘신 역사길라잡이’란 역사 참고서도 만들었다.

김씨는 몸을 너무 혹사시킨 탓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열병으로 2개월 동안 꼼짝없이 병원신세를 져야만 했다.

그러나 몸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퇴근 후 매일 밤 11시까지 야학을 가르치는 강행군은 계속됐다. 야학을 핑계로 번번이 회사에 빠지는 일이 잦아 이제 직장상사와 동료들은 아예 회사자리에 나오란 말조차도 꺼내지 않는다.

또 아내 변공숙씨(54)의 ‘야학금지령’도 내려졌다.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이 몸도 돌보지 않고 야학에만 매달리는 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변씨는 밤낮 야학에 빠져 사는 남편의 건강이 더 악화될까 봐 말려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도무지 야학에 대한 김씨의 집념을 꺾을 수 없었다. 사실 야학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큰 유혹의 손길도 있었다. 모 임시학원에서 제시한 역대의 스카우트 제의가 그것. ‘역사과목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가르친다’는 인소문이 학원가에게까지 알려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NO’.

“임실 심원사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주지 스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제 욕심만 쟁기지 말고 많이 배움면서 살라’고요. 저를 믿고 따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게 ‘내 길’이란 생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배우고 싶다”는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들이 속속 입학할 때와 야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의 당당한 역군으로 거듭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지금까지 길러낸 김씨의 제자 중에는 은행지점장, 해군장교, 교수 등 각계에서 제 몫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김씨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표창을 받았다. ‘국방부장관 표창’ ‘서울사랑 시민상’ ‘자랑스런 서울 시민상’ ‘전라북도지사 표창’ 등.

이뿐만이 아니다. 명절과 생일 때면 김씨의 집은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 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김씨의 집을 찾기 때문이다.

주택범씨(45)는 “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때론 아버지처럼 때론 친형처럼 회초리도 드시고 그 추웠던 비닐하우스 야학교에서 라면을 끓여주셨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면서 눈물을 글썽인다.

지금까지 4년 간 함께 근무해 온 중부청소년학교 송용순 교장 선생님은 “김 선생님을 보면 ‘봉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보다는 ‘친자식들을 가르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마음이 흐뭇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다. 동료 교사인 권윤길씨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열과 성의를 다하는 김 선생님이 존경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무와 숲을 가꾸는 게 백년지대계라고 한다면 교육사업은 천년지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고 머리 속에는 지식을 담아주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씨. 스무 살 때 스님에게 펜을 써서 배우면서부터 공부에 취미를 붙여 불과 3년 만에 중·고교 검정고시와 9급 군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학구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고 내친 김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지금은 박사학위에 도전 중이다.

이제 2년 후면 정년퇴임을 하는 김씨. 여는 사람 같았으면 퇴직연금으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겠지만 그는 오히려 끝 레를 벗어날 기분이라한다. 이제 정말로 하루 24시간을 모두 야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비닐하우스 야학교에서처럼, 가난하고 추웠지만 배우겠다는 의지만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고 사랑과 꿈이 넘치는 야학교를 세우겠다는 김씨. 다복다복 혹은 판을 채워가는 선생님의 분필 글씨처럼 그의 소중한 꿈도 그렇게 채워지고 있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매 기자

### 군무원 생활하며 21년간 야학 지도에 전념 역대 스카우트 제의도 뿌리치고 ‘베푸는 삶’ 자원 졸업한 학생들 사회서 제 몫 다할때 큰 보람



밤늦은 시간, 총무로 중부청소년학교의 야학생들이 김진식씨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 봉 제천 사암연합회 불자와 함께하는 성도재일 축하공연 행

성도재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것과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해탈할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날이기에 불교의 4대 명절중 하나로 정하여 기쁘하고 찬탄하는 날입니다. 제천지역 사부대중여러분은 수회 동참하시어 이 기쁜날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 일시 : 불기2550(2006)년 1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 ◆ 장소 : 제천 문화회관 특설무대 ◆ 주최 : 제천 사암연합회
- ◆ 주관 :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총부지사
- ◆ 문의 : 연합회 회장 황도스님 043)652-0897  
총무 해선스님 043)642-3049

#### 제천사암연합회

- 회장 무암사 황도 • 총무 응담사 해선 • 재무 백운사 법륜 • 서무 정암사 정암
- 고문  
몽암사 월산 / 백련사 담월 / 송화사 경암 / 통도사 정암
- 자문위원  
원각사 원명 / 정방사 석구
- 회원  
강천사 지광 / 경은사 경암 / 대각사 백운 / 대도사 성광 / 복천사 성문 / 봉정사 해암 / 삼천사 수산 / 석불사 월은 / 영천사 해봉 / 운장사 성우 / 월명사 법해 / 장락사 해원 / 정업심인당 정법 / 한산사 동법 / 홍림사 성범 / 해월사 법화심

- ◆ 공연내용  
사회 : 장춘권(전문 진행자)  
출연진 : 가수 - 보현스님, 김태곤, 장미화, 유미, 석기영



### 제천 사암연합회 회장 황도 합장